

컨트롤 타워 부재...롯데호는 표류 중

오늘 신인지명회의도 단장 없이 진행 FA·외인·2차드래프트 등 과제 산적 당장 선임해도 업무파악하다 시즌 끝 타 팀 비해 전략수립부터 한 발 늦어

프런트의 수장 없이 보낸 약 40일의 시간. 롯데 자이언츠는 여전히 바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분위기 반전을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 그 뿐이다. 25일 NC 다이노스와의 사직 홈경기에서 5-4로 역전승하며 가까스로 7연패 사슬을 끊어내고 최하위에서 탈출했지만 롯데는 언제 다시 꼴찌로 떨어질지 모르는 9위에 불과하다.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단장 선임 단계에서 제자리걸음 중이다. 이대로라면 2020시즌에 극적인 반전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전반기 종료 이튿날인 7월 19일, 롯데

는 양상문 감독과 이윤원 단장의 자진사퇴를 발표했다. 최하위로 떨어진 팀 성적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는 명분이었지만, 야구계에서는 이들의 사퇴를 사실상의 경질로 보고 있다.

현장의 공백은 공필성 수석코치에게 대행 자리를 맡기며 수습했다. 당시 롯데는 "완성도 있는 선수단 전력 편성, 선수 맞춤형 육성 실행, 소통이 되는 '원 팀(One Team)'의 완성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선수단 운영 등의 역량을 기준으로 단장을 선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야구가 단장에게 바라는 허을 좋은 미사여구를 잔뜩 붙였지만 정작 38일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소식은 없다. 롯데 측은 25일 "신중을 기해 인선에 힘썼다. 조만간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후반기 롯데의 성적도 결국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공 대행체제 이후 첫 16경기까지는 8승8패, 5할 승률을 기록하며 9월까지 한 계단 올라섰다. 단지 성적을

넘어 분위기 전환의 성과도 뚜렷했다. 공 대행은 무기력증에 빠진 베테랑들에게 확실한 신뢰를 보여줬고, 이들을 중심으로 선수단이 뭉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후 8경기에서 1무7패로 급전직하했다.

문제는 5할 승률, 혹은 1무7패 따위의 성적이 아니다. 롯데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할 인사가 아무도 없다는 점이 더욱 치명적이다. 현실적으로 롯데의 가을야구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제 2020시즌 이후를 내다봐야 할 시점이다. 원년 팀 첫 10위라는 굴욕을 피한다는 대의도 좋지만, 이를 위한 과정에 명분이 없다.

단장 KIA 타이거즈만 해도 유망주 대거 기용의 의지를 드러냈다. 미래를 위한 투자다. 하지만 지금 롯데는 이도저도 아니다. 베테랑들에게 든든히 힘을 살지도, 젊은 선수에게 확실히 기회를 보장하지도 못하고 있다. 공 대행으로서는 '감독대행'이라는 골레 탓에 운신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다. 프런트에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럴 인사가 없는 현실이다.

현재 들리는 이야기처럼 일부 인사가 단장으로 선임되더라도 그 후가 문제다. 업무파악을 마친다면 올 시즌은 끝난다. 단장 26일 신인지명회의도 롯데는 단장 없이 진행한다. 이 뿐 아니라 프리에이전트(FA) 시장부터 40인 외 2차드래프트, 외국인 선수 인선 등 과제가 산더미다. 어느 팀보다 바쁜 겨울을 보내야 하지만 타 팀에 비해 전략 수립부터 한 발 늦을 수밖에 없다. 구단 내부에서조차 "단장 내년이 올해와 다를 거라는 장담을 누가 선불리 할 수 있겠나"라며 "이대로라면 2020년 순위도 결정된 것 아니겠나.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게 답답할 따름"이라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현장과 프런트 수장의 동시 교체. 칼을 뽑아들었지만 무를 자르기는커녕 제대로 휘두르지도 못하고 있다. 원년 팀 롯데의 현주소다.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SK 김광현

빅리그 노리는 김광현 '1회 징크스' 극복 속제

KIA전도 1회 2실점 패전 명예

커리어 하이로 향하는 SK 와이번스 김광현(31)은 아직 풀지 못한 숙제가 남아있다. 매 경기 초반마다 상대 타자와 어렵게 승부를 펼치는 징크스를 떨쳐내는 일이다.

에이스의 명성을 드높이는 시즌이다. 리그 2위에 해당하는 15승을 책임지는 한편 시즌 평균자책점도 2.42로 줄곧 상위권에 이름을 올려왔다. 토종 선발 투수 중에서는 두 부문 모두 1위다. 김광현이 선발진의 중심축을 맡아주는 덕분에 팀도 승승장구하는 중이다. 리그서 가장 탄탄한 선발진을 앞세워 독보적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다. 팀이 통합우승이라는 영광스러운 목표를 정조준해둔 가운데 김광현 역시 2010년 작성한 단일 시즌 개인 최다 17승을 넘어설 기세다. 이로써 '꿈의 무대'인 메이저리그 진출과도 가까워지고 있다.

다만 반복되어 주어지는 핵심 과제를 풀어야 한다. 올 시즌 1회마다 찾아오는 고전의 시간을 지워야 한다. 25일 인천SK행복드림구장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와의 홈경기에서도 김광현은 1회부터 실점을 떠안고 시작했다. 선두 타자 박찬호에게 중전 안타를 맞은 뒤 도루로 2루까지 내줬다. 뒤이어 김선빈에게 볼넷을 허용한 김광현은 최형우의 우중간 적시타, 안치홍의 희생타로 순식간에 2점을 헌납했다. 이날 6이닝 3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1회 실점은 김광현으로 하여금 아쉬움을 곱씹게 했고, 결국 그는 팀이 2-4로 패하면서 시즌 4패째(15승)를 기록했다.

이렇듯 김광현은 올 시즌 1회마다 힘든 싸움을 이어간다. 25일까지 1회에만 114타자를 상대해 32안타 9볼넷으로 가장 어려운 승부를 벌였다. 1~9회 각 성적을 통틀어 수치가 제일 높다. 이는 자연스레 1회 최다 11실점(10자책점) 기록으로 이어진다. 그 다음으로 실점 빈도가 높은 것이 3회(9실점), 6회(9실점·8자책점)다. 물론 김광현 특유의 위기관리 능력으로 1회 고비를 순조롭게 극복해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경기 초반부터 빠르게 쌓이는 투구수와 실점은 에이스 김광현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만드는 요소다. 최고로 향하려는 김광현이 꼭 넘어야 할 산이다.

인천 | 서다경 기자 seody3062@donga.com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몸 날리는 김선빈 KIA 김선빈(오른쪽)이 25일 인천 SK전에서 1회초 1사 1·3루 상황에서 안치홍의 희생플라이를 틈타 홈 플레이트를 밟고 있다. 인천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심우준, KT 창단 첫 장내 홈런 새 역사

LG전 9연패 끝...분위기 반전 건인 40연속경기 무실책 수비서도 활약

2승 10패. 24일까지 올 시즌 KT 위즈의 LG 트윈스 상대 전적이었다. 힘겨운 5강 싸움 끝에 가을야구 막자 타켓을 거머쥐더라도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은 LG에게 절대 약점을 보인다는 것은 치명적이었다. 심우준(24)이 이러한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창단 첫 대기록과 함께.

KT는 25일 잠실 LG전에서 7-3으로 승리했다. 선발투수 배제성이 5이닝 1실점으로 시즌 7승(9패)째를 따냈다. 타선에서 가장 빛난 건 9번타자 겸 유격수로 선발출장해 2타수 2안타(1홈런) 3타점을 기록한 심우준이었다. 3-1로 앞선 6회, LG 선발 타일러 월슨을 상대로 중견수 키를 넘기는 인사이드 파크 더 홈런(장내 홈런)을 때려냈다. 2015년 1군 진입한 KT의 창단 1호 대기록이었다.



KT 심우준

최근 심우준의 방망이는 식을 줄 모른다. 이날 포함 최근 15경기 타율은 0.388(49타수 19안타)에 달한다. 특히 수비에서 진가가 더욱 빛났다. 6월 27일 사직 롯데 자이언츠전 이후 무려 40연속경기 무실책 행진이다. 공수에서 유격수가 중심을 잡아주니 KT 타선에도 활력이 느껴진다.

KT는 심우준의 활약을 앞세워 LG 공포증을 깬다. 이날 전까지 올 시즌 2승10패이자 최근 9연패, 특히 잠실에서 내리 7전 전패로 고전하던 분위기에 제동을 건 승리였다. 이강철 감독도 이날 경기 전 "이렇게 꼬이는 팀이 꼭 있는 것 같다"며 아쉬움을 숨기지 못했다. 만일 LG가 4위를 유지하고 KT가 NC 다이노스를 제치고 5위에 올라선다면 와일드카드 결정전은 잠실에서 LG 상대로 치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1승 이상의 의미를 둘 만한 승리였다.

잠실 | 최익래 기자

채드 벨 컴백...한화 외인 선발 풀가동

허리 통증 회복...볼펜 피칭 소파 다음 주부터 선발로테이션 합류

한화 이글스 외국인투수 채드 벨(30)이 선발로테이션에 재합류한다.

한화 한용덕 감독은 25일 대전 두산 베어스전을 앞두고 "벨이 오늘 볼펜피칭을 했다"며 "조심조심 접근하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다행히 벨은 볼펜피칭을 마친 뒤 "문제없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한화 구단 관계자는 "벨이 다음 주부터 정상적으로 선발로테이션에 합류해 투구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벨은 훈련을 마치고 라커룸으로 들어가며 큰 짐을 털어낸 듯 가볍게 미소를 보이기도 했다.

벨은 13일 대전 NC 다이노스전에 선발 등판 예정이었지만 12일 훈련 도중 허리 통증을 호소해 등판을 미뤘고, 14일에는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생각보다 통증이 오래간 탓이다. 다행히 볼펜피칭을 문제없이 마치면서 남은 시즌에는 정상적으로 마운



한화 채드 벨

드에 오를 전망이다. 벨은 올 시즌 1군 23경기에 선발등판해 11차례 퀄리티스타트(QS·선발 등판 6이닝 3자책점 이하)를 챙기고 6승9패, 평균자책점 4.07을 기록했다. 26경기에서 8승11패, 평균자책점 3.98을 기록 중인 워워 서폴드와 함께 몇 안 되는 선발진의 믿을 구석이다. 24일까지 한화의 올 시즌 선발투수 평균자책점은 5.22로 10개 구단 중 최하위다. 벨과 서폴드를 포함해 올 시즌 선발등판한 투수만 14명에 달하는 등 로테이션 구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외국인투수들이 정상 가동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는 얘기다.

한 감독은 또 다른 선발자원인 장민재에 대해서도 "2군에서 많이 뛰고 오라"고 했다"고 밝혔다. 장민재는 23일 제정비 차원에서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대전 |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